

# “등록금 인상 NO”... 교육부 강공에 12년째 동결 분위기

사총협, 올해 등록금 인상방안 협의  
교육부 “사회적 합의 필요” 되풀이  
일부 대학, 법정한도내 인상 검토



7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 2020년 신년하례식 및 제1차 회장단 회의가 열렸다. 총장들은 이날 올해 등록금 인상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월 중 올해 대학 등록금 납부 통지서 발송 시한을 남겨두고 등록금 동결 정책을 고수하는 교육부와 최소한의 인상을 요구하는 대학들 간 기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다수 대학들은 올해도 12년째 등록금 동결·인하에 동참할 전망이다. 일부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금과 등록금 인상분을 저울질해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학가 등록금 갈등이 불거질지 우려된다.

한국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사총협,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27개 사립대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회를 겸한 회장단 회의를 갖고 올해 등록금 인상 방안을 협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총장들의 교육부에 대한 성토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국내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재정난을 못 본 채 하면서 고등교육의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면서 “교육부를 포함해 정치권이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박백범 차관이 참석해 사총협이 앞서 지난 11월 제시한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1.95%) 인상’ 건의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등록금 동결 정책 유지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 차관은 교내 장학금 비율 20% 이상인 대학에 한해 국가장학금 2유형 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했다.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는 최근 3년간 물가인상률의 1.5배 이내로 교육부는

최근 올해 등록금 상한선을 1.95%로 고시했다. 하지만 등록금을 법정 한도 내에서 인상해도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아 다수 대학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등록금 인하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대와 단국대 등 다수 대학들은 대학측과 학생대표단 등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하기로 했다.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서자, 각 대학 총학생회를 위주로 등록금 인상 저지를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 고려대 서울캠퍼스와 세종캠퍼스 총학생회는 6일 ‘2020년도 등록금



지난 6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2020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대안을 위한 등록금 문제 공동대응 특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 참여한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심의위원회 대안을 위한 등록금 문제 공동대응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등록금 인상 사전 차단에 나섰다.

반면, 일부 대학들은 국가장학금 2유형 등 등록금 동결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금과 등록금 인상에 따른 재정확보를 저울질해 법정한도내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집계한 대학 정보공시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8년 4년제 일반대학 185곳 중 90%에 가까운 165곳이 등록금을 동결했다. 6개 대학은 전년보다 등록금을 인하였고, 8곳은 등록금을 소폭 인상했다. 학생 1인당 평균등록금은 671만2000원으로 집계됐

다. 이공계열 규모가 큰 대학 위주로 등록금이 높아 연세대(910만2000원), 한국산업기술대(900만5000원), 이화여대(858만5000원), 을지대(849만6000원), 한양대(847만9000원) 순이었다.

일각에서는 OECD 국가 등 해외 대학들과 비교해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지만,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이 다수인 OECD 국가와 사립대학이 다수인 우리나라 대학의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등록금 인상보다는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에 등록금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얘기도.

실제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사립대 등록금은 상위권 수준이지만, OECD 국가 대학의 80% 이상은 국공립대학으로 정부 지원을 받지만, 사립대학이 90%에 육박하는 우리와는 현실이 다르다.

특히 대학들은 정부가 1996년 대학설립준칙주의 시행 이후 사립대학 정원급증을 방지해놓고, 학령인구가 감소하자 정원을 줄이라고 하면서 등록금도 올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 오류에 대한 책임을 사립대학에 지우는 꼴이라는 입장이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대교, 동네 책방으로 新 문화의 장 마련

‘세상에서 가장 큰 책방’ 프로젝트  
팝업스토어 ‘BBB’ 11일부터 개최

대교는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동네책방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지원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책방’ (세가방) 프로젝트의 팝업스토어 ‘BBB(Between Book and Book)’를 11일부터 이틀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팝업스토어 BBB는 서울 연남동에 위치한 연남장에서 진행된다. ‘책과 책 사이에서 생겨나는 또 다른 이야기’를 슬로건으로 동네책방과 독립출판사,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예술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팝업스토어에서는 책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독서 문화에 대한 관심을 장려하고, 동네책방에서 고객과 산업 종사자들의 소통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으로는 고객의 취향에 맞는 동네책방 큐레이션을 한 곳에서 만나 볼 수 있는 ‘취향서재’, 약 60여개 동네책방과 독립출판사, 관련 크리에이터 팀이 참여해 독립출판물을 선보이는 ‘북 크리에이터 마켓’ 등이 운영된다.

한용수 기자

## 교육부, 저소득층 8000명에 평생교육 이용권 제공

9일부터 평생교육 이용권 신청 접수  
수강료·재료비 등 年 35만원 지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9일 오전 10시부터 2월 5일 오후 6시까지 평생교육 이용권 누리집에서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신청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평생교육 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

지난 2018년~2019년까지 평생교육 이용권을 통해 총 1만2586명이 1만 2042개 평생교육강좌를 수강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농협 평생교육 희망카드를 발급받아 평생교육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교재비로 연간 35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

다. 신청자격은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가구 소득이 약 300만원 미만)인 자로 전년과 동일하다.

신청자는 소득수준 파악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전년보다 3000여명 늘린 8000여 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4000명을 우선 선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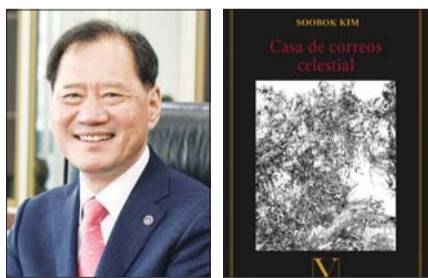
한용수 기자

## 김수복 단국대 총장의 詩, 스페인에 울린다

시집 ‘하늘 우체국’ 스페인어판 출간

시인 총장인 김수복 단국대 총장이 2015년 데뷔 40주년을 맞아 펴낸 시집 ‘하늘 우체국’ (서정시학 간행)이 최근 스페인어로 번역 출간됐다. 스페인 베르븀(VERBUM) 출판사는 김 총장의 시 ‘봄의 꽃, 목련이 떨어지는 경우, 바다보다 먼 강으로, 남한강 어딘가, 한반도, 동백’ 등 80편의 시를 1,2부로 구성해 ‘Casa de correos celestial’ (108페이지)라는 제목으로 펴냈다.

스페인 대표적 해외문화 소개 출판사인 베르븀은 김 총장 시집이 스페인어권 독자들에게 진정한 발견을 제공하고 한국의 신비롭고 이국적인 이미지를 절제된 서정적 언어로 전달했다고 평가했다. 또 인간과 자연과의 정서적



김수복 단국대 총장(왼쪽) 시집 ‘하늘 우체국’의 스페인어판 ‘Casa de correos celestial’ 표지(오른쪽)

대응을 통해 인간의 가장 깊은 시적 기원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원전 텍스트 시집 ‘하늘 우체국’은 개인이 지닌 다양한 추억의 흔적을 복잡하지 않은 절제된 시어로 표현했고, 탐색과 기억을 통해 재구성된 세계관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단 평가를 받아왔다.

한용수 기자

## “원하는 일자·장소에서 병역판정 받으세요”

병무청 13일부터 병역판정검사 접수

병무청은 오는 13일부터 일자·장소 선택이 가능한 병역판정검사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13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대상은 만 19세가 되는 2001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 등이다. 이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장소를 하루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선택한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는 신청자 본인 명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아이핀 또는 블록체인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해 주민등

록증 등 공적신분증 제시 후 신청할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 11조에 따라 19세가 되는 해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의 학업 또는 직장 생활 등을 고려해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도 희망하는 일자·장소(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직권으로 지정한다”며 “사전에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선택해 원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형철 기자 captinm@

## 대성학원 18일 재수성공전략 설명회

대성학원은 18일 오후 2시 숙명여고 대강당에서 ‘2021 재수성공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김원중 강남대성학원 진학지도과장이 ‘2021학년도 대입심층 분석과 맞춤 솔루션’을 주제로 강연하고, 고은 대성학원 상담원장이 ‘입시 성공 학습법 및 대성학원 성적 향상 시스템 공개’를 주제로 대성학원의 성적 향상 노하우를 공개한다.

대성학원 관계자는 “2020학년도 수능 전과목 만점자 배출, 11년 연속 만점자 배출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낸 대성학원의 입시 전략과 교육 노하우가 수능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참석자 전원에게는 대성학원의 입시 전략이 담긴 ‘2021 재수성공전략 자료집’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